

'반려섬' 사업 신청 접수... 무인도서 관리 본격화

기업·단체와 무인도서 1대1 연결해 정화활동 추진 차귀도·형제섬·지귀도 중심 7월부터 시범사업 예정 사유지 무인도서는 소유권 분쟁 우려로 대상 제외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주 무인도서를 민간과 함께 관리하는 '반려섬' 사업이 첫 참여 신청을 접수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기업과 단체로부터 반려섬 사업 참여 신청이 접수돼 현재 활동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반려섬 사업은 기업이나 단체를 무인도서와 1대1로 연결해 정화활동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수행하도

록 하는 제도다. 기존 행정 중심 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무인도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도에 따르면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기업과 단체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도는 실제 활동 수행 능력과 지속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여서 신청 단체 수와 구체적인 기업 명칭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단체는 희망하는 무인도서를 제시해 참여를 신청하면 제주도가 안전성, 접근성, 활동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우선 선박 접근이 가능하고 접근이 비교적 쉬운 무인도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당초 검토됐던 일부 도서는 사유지 문제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신청은 들어온 상태지만 실제로 정화 활동과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참여 기업·단체를 지정해 오는 7월 중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이어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사유지인 무인도서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완전한 사유지 형태의 도서는 우선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시범사업 후보군에 포함됐던 죽도와 와도, 다려도 등 일부 무인도서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귀도와 형제섬, 지귀도 등 공공 관리가 가능한 무인도서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참여 수요 등을 분석한 뒤 반려섬 대상 무인도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19일 금요일 음 5월 5일 (12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주	70%
60%	성산	70%
60%	고산	70%
60%	서귀포	7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22/28°C
모레	흐림	20/27°C

흐리고 비

제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C, 낮 최고기온은 25-27°C로 예상된다. 내일 늦은 밤까지 비가 오겠으며, 오늘 밤부터 풍랑과 강풍에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5:24	달뜨기	09:43
해질	19:47	달지기	23:22
물때	만조 01:50 13:33	간조	08:25 20:11
자외선지수	높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공기업·공공기관 진로·취업 박람회

24일 제주대 아라컨벤션홀

제주대학교가 오는 24일 '공기업·공공기관 진로·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대 아라컨벤션홀에서 진행된다. 한국마사회와 제주대 내지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모두 42개 공기업·공공기관이 함께한다. 제주대 재학생, 졸업생을 비롯해 도내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람회에선 졸업생 멘토링과 전문가 특강, 기업 설명회 등이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면 제주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은 "제주에서 커리어를 설계하고 정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마련했다"며 "제주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 산업·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노루의 모정 18일 서귀포시 성산을 수산리 제주자연생태공원에서 어미 노루가 갓 태어난 새끼를 정성스럽게 핥아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새로운 교육지표를 만들어주세요"

고의숙 교육감 당선인 인수위 지표 공모

최종 선정 지표 7월 1일부터 교육청 게시

고의숙 제주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 준비위원회'가 제주 교육의 새로운 지표를 공모한다. 최종 선정된 지표는 새 교육감이 임기를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교육청 본관 입구에 게시된다.

제주교육준비위는 오는 22일까지 교육지표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지표는 제주 교육의 정책 방향과 교육철학 등을 담은 표어 형식의 문장이다. 현재 도교육청의 지표는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

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다.

제주도교육청 누리집에 개설된 배너에 접속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후 15자 내외의 교육지표와 지표에 담긴 비전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새로운 교육지표는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강봉수 제주교육준비위원장은 "도민,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 비전을 통해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구현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도교육청 대입정보박람회 개최

내달 10-11일 제주한라대서 전국 70여 개 대학·기관 참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7월 '2027학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대입박람회는 같은 달 10일부터 11일까지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1층에서 열린다. 전국 70여 개 대학과 기관이 참여해 도내 학생과 보호자에게 대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포항공과대학교가 새롭게 참여한다. 대한민국 육군본부의 육군 간부 진로 상담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 전문대학 진학 상담도 함께 운영된다. 박람회는 첫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튿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대학별 상담 부스에선 사전 예약 없이 상담 가능하다. 도교육청 진학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진행하는 '1대1 진학 상담'은 미리 신청해

야 한다.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이공계 특성화 대학과 관련 기관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진학 방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6

2026. 6. 24.(수) - 26.(금) |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 제주돌문화공원

REINVENTING 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